

2018동계올림픽 도시 평창, 벌써 올림픽 특수 성공 개최 염원 담은 '대중' 종각 준공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원 평창군이 일찌감치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올림픽 특수를 맞고 있다.

추석 연휴가 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평창군 대관령면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은 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수치다.

대관령면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평창군은 내년 2월의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관광객 맞이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

우선 대관령면 로타리 주변 시가지 도로의 아스콘 포장공사와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새로 단장했다.

평창군은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황계·장평·진부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다.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다.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외에 굿 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평창의 깨끗한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말에는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된다.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평창군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은 원주~강릉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여는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진부역사 광장에는 농특산물 판매·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진부역사를 거점으로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대중 종각 준공 및 기념 타종행사가 11월 15일 평창군청 광장에서 열렸다.

대중은 상원사 동종 향아리 모양 외형을 기준으로 힘차고 웅장하며 여음을 오래 들을 수 있도록 두꺼운 하대를 갖췄다.

무게 2천18관(약 7.5t), 높이 2.8m, 직경 1.6m다.

제작은 원광식 주철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이 맡았다.

평창군의 군화 철쭉, 군조 원앙, 평창군 로고·엠블럼, 평창동계올림픽 마스크트 등 다양한 문양을 넣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군 의미를 담았다.

종각은 전통목구조로 팔작지붕에 주심포양식 기둥 등 고풍스러운 우리 고전 건축문화를 느낄 수 있게 제작했다.

대중 제작과 종각 건립에 평창군민도 성금을 보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개인·단체 1천 362명이 참여해 2억6천900만원을 모았다.

대중 제작·종각 건립 총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민 모두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올림픽 대중·종각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이끄는 것은 물론 화합하는 군민 상징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중 도안

SNOW LAND

— 송어축제 —

2018평창동계올림픽
PYEONGCHANG WINTER FESTIVAL
송어축제
주최 | 평창군 주관 | 평창송어축제위원회, 대관령축제위원회
후원 |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총감독 | 감성감자

공릉 공릉면 오대천 일원

2018. 12. 22. ~ 2018. 2. 25. 일



2017. 12. 22. 금. ~ 2018. 2. 25. 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

2018평창윈터페스티벌

PYEONGCHANG WINTER FESTIVAL

주최 | 평창군 주관 | 평창송어축제위원회, 대관령축제위원회
후원 |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총감독 | 감성감자

— 송어축제 —
ICE LAND